

“자비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 15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역설

“깨달음과 자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런데 자비는 깨달음의 그늘 속에서 그 위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잘난 형님이 됐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은 못한 동생이 됐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3월 15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열린논단 발제문 ‘자비 실천의 윤리교육적 접근’에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상구보리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얻고, 하화중생을 통해 바른 정도를 만든다. 하화중생은 자비수행을 통해 얻어진다”며 “자비는 열반으로 가는 수단이지만 불교의 목적 그 자체이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자비보다는 깨달음에 집착해 왔다”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비윤리적 사건 등에 대해 방영준 교수는 인간의 삼독(三毒)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자비 구현을 꼽았다.

자비는 사랑 배려 겸양 절제 용기 등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덕목이다.

방영준 교수는 “추상적인 자비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친근하게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자비 구현을 위해서는 연기법과 무아, 공의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복합체계 이론(complexity system theory)’을 소개했다.

복합체계이론은 카오스 이론, 양자역학,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 이론 등

깨달음과 자비는 수레 두 축이나 한국불교 깨달음 주제에 집착 체험학습 · 학문적 접근 필요

현대 첨단 과학으로 설명되지만 그 이론의 배대는 연기법이다.

‘비평형열역학’ 이론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프리고진(Ilya Prigogine) 등 다수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불교의 사유 방식과 유사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일반인들에게 ‘자비’라는 용어는 ‘선한 동기’와 ‘자기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섣뜻 자비행을 펼치기가 어렵다.

방영준 교수는 “일반인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자비행을 하려면 자비 행위를 위한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가 말하는 체험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적 상상력을 개발하는 것



방영준 교수는 깨달음 만큼이나 자비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다. 방영준 교수는 그 예로 봉사활동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오늘날 자비의 실천, 즉 보살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봉사이다.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봉사 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방영준 교수는 “자비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다”며 10개의 계승으로 구성된 ‘자비경’을 권했다.

‘자비경’은 <숫타니파타>에 포함된 경전으로 안거 중인 제자들이 나무 신들에 의해 정진을 방해 받자 부처님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설한 말씀이다.

이와 함께 방 교수는 아차리아 붓다라키타 스님이 지은 <자비관>을 소개했다. 붓다라키타 스님은 자비를 ‘보편적’ ‘비이기적’ ‘일체를 포용하는 사랑’으로 표현했다.

방영준 교수는 “불교는 자비라는 큰그릇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물을 틀 생각은 않고 그릇 자랑만 하고 있다. 깨달음만 강조되고 자비가 경시되는 불교는 없다”며 “자비라는 큰 그릇의 사용을 위해 자비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 확산을 위한 틀을 마련해 자비 포교의 구체적 방안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ibul.com

“염불 천대 받는 풍토 바꿀 터”

한국정토학회 새 회장 성운 스님

“원료·의상 등 큰스님들도 말년에는 염불신앙에 매진했습니다. 염불은 하급기 중생의 수행법이라는 오해 불식을 위해 학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정토학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한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불교가 간혹선 등 특정 수행법에만 치중하면서 깨달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스님은 “사찰마다 1000원 기도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걸면서조차 정자 염불이 참선 보다 저열하다는 인식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살아서는 염불 수행을 통해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해 행복하자



발행하고 있다. 스님은 생활화된 학문을 위해 학술세미나장이 아닌 사찰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에는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에서 관음신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불자라면 서원에 이웃 빠져선 안돼”

최봉수 박사, ‘서원’ 조영

서원은 대승불교의 주요 덕목을 정리한 십바라밀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

최봉수 박사는 최근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이 펴낸 <정토학연구> 제16집 기고논문 ‘대승불교 서원 의식의 초기 불교적 모습에 관한 일고찰’에서 서원을 학술적으로 고찰했다.

최 박사는 “서원은 초기불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덕목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원삼매(無願三昧), 무원해탈(無願解脫)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정해야 할 존재였다는 설명이다.

단어가 아닌 서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구(聖求, ariya-pariyesana)라는 표현이 있다.

최봉수 박사는 “초기불교에 출현하는 이 단어는 강렬한 서원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다. 부처님 6년간 보살행의 근본 동기가 ‘성구’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성스런 것을 간

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구이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초기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구’ 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의 결의바라밀다도 대승불교의 원바라밀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최봉수 박사는 “결의 바라밀다의 결의에는 의무 및 서약의 뜻이 들어 있다. 성스런 것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아울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무’ 처럼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 처럼 결의하라는 요청은 그대로 서원의식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불교부처님이 반열반에 즈음해 깨달은 직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부대중이 똑같이 불법 수행에 전념하기를 목적으로 두시고, 전념에 나아가기를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최봉수 박사는 “불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해탈·열반은 물론 이웃의 해탈·열반까지 서원해야 한다는 뜻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대승불교 법화신앙 원류를 찾아

24일 금강대에서 국제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3월 24일 분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적 불교신앙 구축-법화경 세계의 문화적 형상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모치즈키 마사미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본에서의 법화신앙 수용과 전개-일연종을 중심으로’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가 ‘관음신앙의 변용과 그 특징-중국 한국 티베트를 중심으로’ ▷후쿠시 지닌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연종의 신라·고려불교 인식에 대해서’ ▷문무왕 교수(동국대)가 ‘중국 초기 석굴에 나타난 법화신앙적 요소’, △한지

연 교수(금강대)가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천산남포와 양주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은 “동아시아 불교신앙의 원류는 법화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법화신앙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수용과 전개, 정착 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가치를 높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을 받아 불교학 연찬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조동섭 기자

웰다잉 문화 무료 강좌 24일, 동국대 경주캠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유진)은 3월 24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402호에서 ‘제5기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병찬 한국죽음준비교육원장이 웰다잉의 정신, 웰다잉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웰다잉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소개하고,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불교문화대학원에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을 개설해 200여 명의 웰다잉지도사(2급)를 배출했다. 올해 5기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054)770-2392-3 조동섭 기자

석박사 연구자 정보 조계종 교육원서 DB화

조계종이 불교학 연구자 관련 정보를 취합해 인력풀을 만든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불교학 및 각 분야의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계종 소속 스님과 불교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재가연구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해 중대 교육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동에 활용한다.

인물정보 수집 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조계종 소속스님이거나 불교학 관련 분야 전공 재가자로서 2011·2012년도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해당자는 교육원 불학연구소로 연락 후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동국대 종학연구 · 성철사상연구 공동 춘계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윤택)은 공동으로 3월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명장에서 ‘탄생 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頓)과 점(漸)(임승택 경북대 교수) ▷종교사학의 돈점론과 그 이해(동국대 종호 스님) ▷돈오돈수와 조사선(정영식 동국대 HK연구교수) ▷돈점 논쟁 새로 읽기(박태원 울산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성우선사 鏡虛惺牛禪師

열반 100주년 기념 선서화전 禪書畫展

금년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허선사는 모든 형식과 틀, 규범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며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난 회적도명(晦跡翰名)하고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사신 자유인이자 무애인이요, 대력보살이셨습니다. 경허성우대선사를 추모하기 위한 선서화전에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2012. 3월 26(월) - 3월 31(토)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개막식: 3월 26일(월) 오후 2시

주최,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110-858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1337호
Tel. 02 2198 5388, Fax. 02 2198 5389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DX-707 스탠드 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